초등학교 학년 반 번 이름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Gangwon Pyeongchang Office of Education

강원 평창군 평창읍 노성로 193-9
TEL: 033-330-1716 FAX: 033-334-2618 Homepage: gwpce.gwe.go.k

날아올라 평창

날아올라 평창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Gangwon Pyeongchang Office of Education

차례

평창의 상징 3

평창에 사는 친구들 4

1. 평창의 모습

(1) 우리 고장의 여러 장소 7

(2) 하늘에서 내려다 본 우리 고장의 모습 11

(3) 디지털 영상지도로 찾아보는 우리 고장 주요 장소 13

2. 평창의 옛이야기

(1) 평창의 이름 유래 19

(2) 우리 고장 땅이름 21

(3) 우리 고장 옛 이야기 23

3. 평창의 문화유산

(1) 이야기로 알아보는 우리 고장 문화유산 47

(2) 우리 고장의 다양한 문화유산 55

(3) 우리 고장 문화유산 체험 57

4. 평창의 환경과 생활모습

(1) 우리 고장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61

(2) 우리 고장 사람들의 생활 모습 65

평창의 상징

심 볼

평창 심볼마크는 한강의 발원지인 우통수의 사각 모양을 본떴어요.

빛의 삼원색인 빨강, 초록, 파랑색을 사용하여

불, 산, 바람, 물을 상징해요.

마스코트

눈동이

평창에 겨울이 오면 스키를 타러 오는 관광객들이 줄을 이어요.

눈동이는 모습이 동글동글해서 푸근하고 깨끗한 마음을 표현해요.

새

원앙

우리 군 곳곳에 살고 있는 새로

화합하는 평창 군민을 상징해요.

나 무

전나무

사계절 내내 푸른 나무로 줄기와 가지가

하늘을 향해 쭉쭉 뻗어 가요.

꽃

철쭉

이른 봄 산기슭이나 물가에 피어나는 분홍색 꽃이에요.

정열을 상징하고 꽃말은 사랑의 즐거움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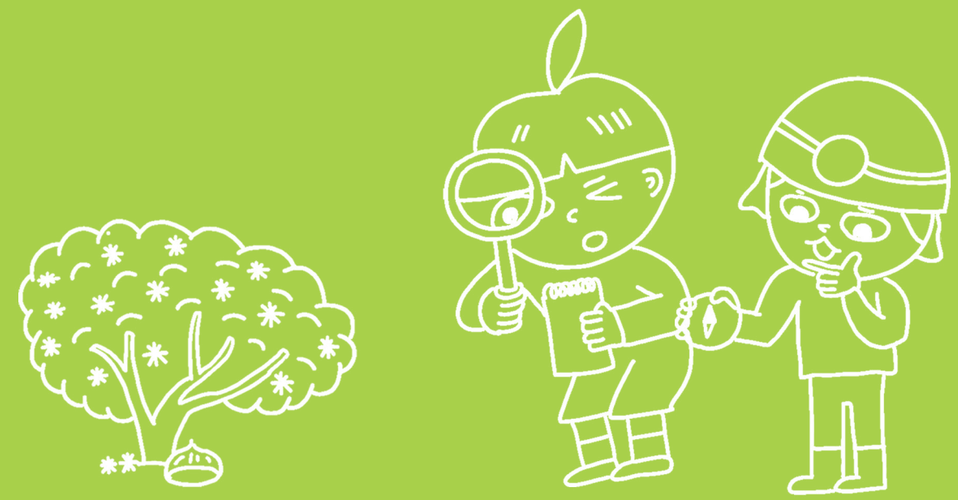
평창에 사는 친구들

1 평창의 모습

❶ 우리 고장의 여러 장소

❷ 하늘에서 내려다 본 우리 고장의 모습

❸ 디지털 영상지도로 찾아보는 우리 고장 주요 장소



1 우리 고장의 여러 장소

내가 아는 장소를 써요.

내가 떠올린 장소로 다섯 고개 퀴즈를 만들어요.

예시

한 고개 친구들과 자전거를 타러 가요.

두 고개 캠핑도 할 수 있어요.

세 고개 평창강 옆에 있어요.

네 고개 패러글라이딩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섯 고개 바위 위에 올라갔다가 혼났어요.

정답은?
ㅂㅇㄱㅇ

한 고개 _____

두 고개 _____

세 고개 _____

네 고개 _____

다섯 고개 _____

정답 _____

우리 고장 장소카드로 놀아요.

1 카드 세 장 골라서 이야기 만들기

2 8개 읍면 카드 분류하기

3 너도? 나도! 게임

① 모둠별로 많이 가 보았을 것 같은 장소 5장을 고른다.
(또는 모둠별로 가장 많이 가보지 않았을 것 같은 장소 5장 고르기)

② 돌아가면서 한 곳씩 발표한다.

③ 다른 모둠과 같은 장소를 골랐으면 점수를 얻는다.

④ 예를 들어, 우리 모둠 카드와 같은 카드가 한 모둠이면 1점, 두 모둠이면 2점을 얻는다.

4 딩고놀이

① 장소카드를 읍면별로 분류하고 24장을 잘 섞어서 각각 6장씩 나눠 갖는다.
(예: 평창읍, 미탄면, 대화면, 대관령면 장소카드 24장 선택)

② 같은 읍면의 카드가 두 장 있으면 내 앞에 내려놓는다.

③ 이끔이가 '하나 둘 셋!'을 외치면 모든 게임 참여자는 들고 있는 카드에서 필요 없는 카드 한 장을 오른쪽 사람 앞에 내려놓는다.

④ 왼쪽 사람이 준 카드를 확인하고 같은 읍면 카드가 두 장이 되면 내려놓는다.

⑤ 손에 든 카드를 다 내려놓으면 큰소리로 '딩고(dingo)'를 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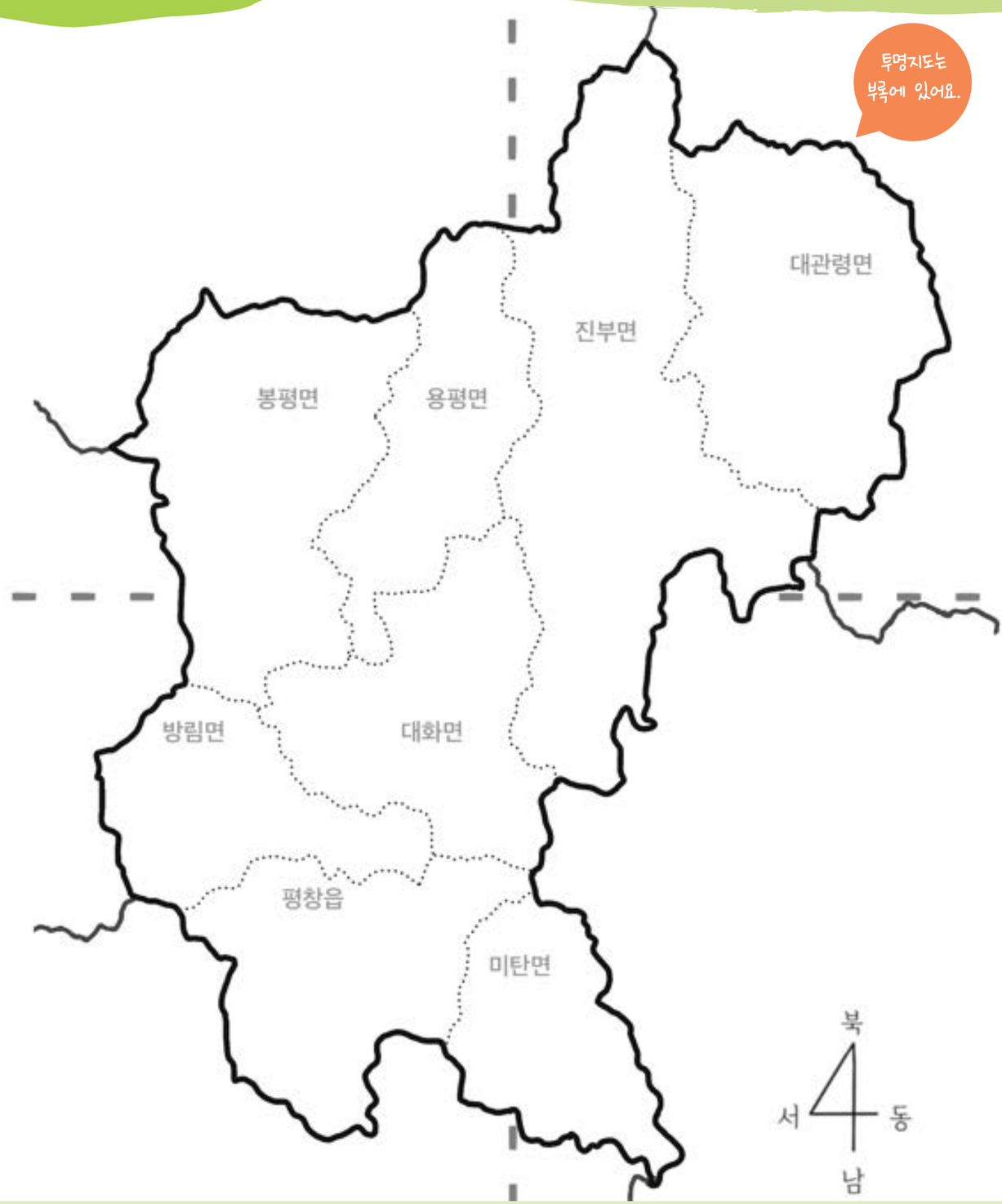
2 하늘에서 내려다 본 우리 고장의 모습

오른쪽 백지도 위에 투명지도를 차례로 얹어요. 평창의 모습이 보이나요? 지도를 보고 아래 빈 칸을 채워요.

행정구역 / 자연환경	대관령면	진부면	용평면	봉평면	대화면	방림면	평창읍	미탄면
산				태기산	금당산		장암산	
하천	송천	오대천	속사천			평창강 계촌천		창리천
동굴								
고개(재)	미탄면~평창읍 _____				평창읍~방림면 _____			
	대화면~용평면 _____				용평면~진부면 _____			
	진부면~대관령면 _____				대화면~진부면 _____			

투명 필름 위에 네임펜과 붙임딱지로 나만의 평창지도를 완성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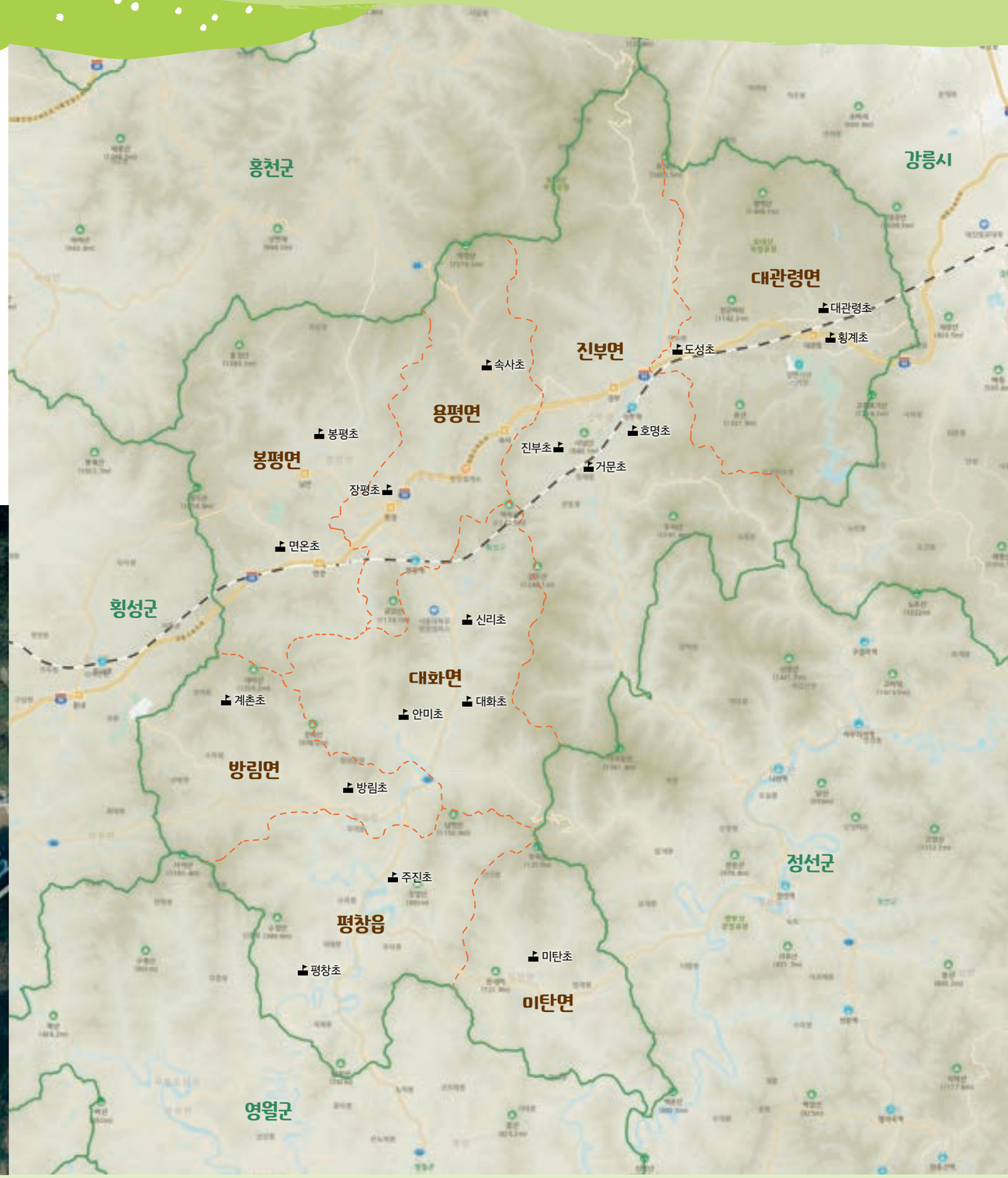
1. 평창군 땅모양 그리기(읍면 경계 그리기)
2. 산, 동굴, 고개 붙임딱지 붙이기
3. 파란색 네임펜으로 하천 그리기
4. 터미널, 역 붙임딱지 붙이기



3 디지털 영상지도로 찾아보는 우리 고장 주요 장소

장소카드를 참고하여 내가 가 보고 싶은 곳을 디지털 영상지도로 찾아보아요.
찾은 곳을 붙임딱지에 써서 지도에 붙여요.

국토정보맵



평창로고송을 함께 불러 보고 노랫말에 어울리는 그림을 그려요.

평창에서

김창완

난 하늘을 나는 꿈을 꾸었지
오랫동안 꿈꿔 온 세상이야.

하늘에 맞닿은 빛나는 대지
가슴속 채우는 상쾌한 공기

들꽃처럼 웃음 짓는 사람들
내 꿈도 저 산과 함께 자라네!

푸른 꿈 자라는 대지에서
우리의 내일도 함께 자라나네!

푸른 꿈 자라는 대지에서
내 발길 머무는 평창에서….

<평창에서>

2 평창의 옛이야기

❶ 평창의 이름 유래

❷ 우리 고장 땅이름

❸ 우리 고장 옛이야기

1 평창의 이름 유래

세상 모든 이름에는 뜻이 있답니다. 내 이름은 어떤 뜻일까요?

내 이름은 _____ 입니다.

_____

_____

_____

라는 뜻이에요.

평창의 뜻을 생각하며 2행시를 지어요.

예 시 **평** 평화로 가는 **창** 창이 활짝 열리는 땅

평 _____

창 _____

평창이라는 이름은 언제 생겼을까요?

고구려 우오현 욱오현

통일신라 백오현

고려 평창현

조선 평창군

오늘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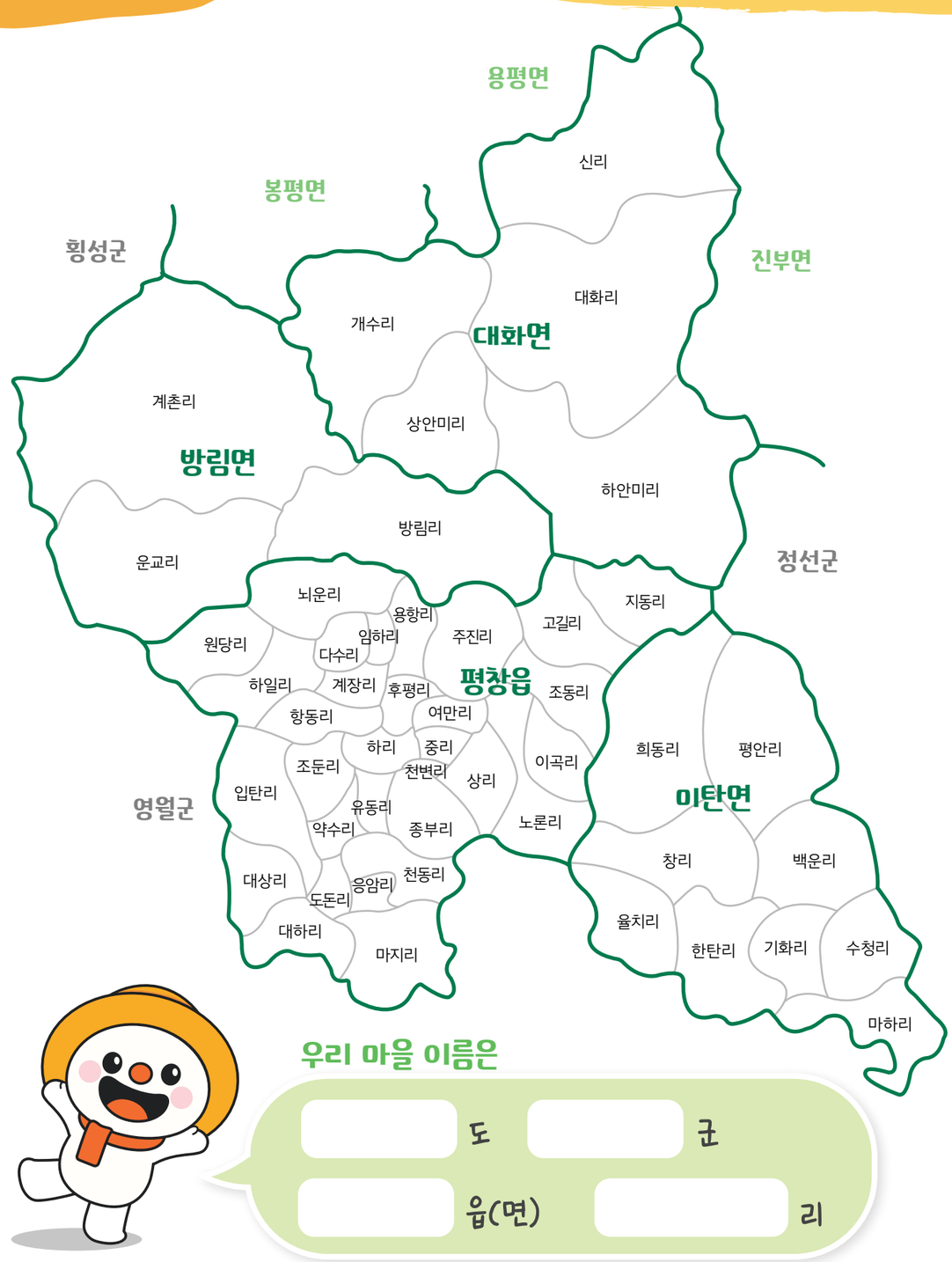
조선시대까지는
방림면, 대화면, 봉평면, 용평면, 진부면,
대관령면은 강릉 땅이었고,
정선군 신동읍은 평창 땅이었대.

그런데 1906년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지금처럼 평창군이 되었다고 해.

고조선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고려	조선	대한제국	대한민국

2 우리 고장 땅이름

내가 사는 곳과 알고 있는 마을 이름을 찾아 색칠해요.



우리 마을 이름은

[ ] 도 [ ] 군

[ ] 읍(면) [ ] 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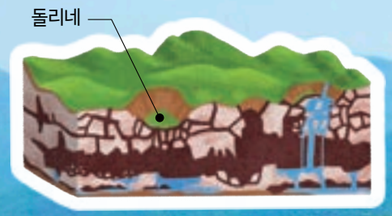
3 우리 고장 옛이야기

옛이야기에는 땅 이름이 만들어진 유래와 옛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담겨 있어요. 산따라 강따라 펼쳐지는 우리 고장 옛이야기 여행을 떠나볼까요?

이탄연

청옥산 꼭대기가 넓고 평평해서 불을 놓아 만든 밭이 화전인데, 곡식 씨앗 육백말을 뿌릴 만큼 넓어 [ㅇ ㅂ ㅁ ㅈ ㄱ] 라 불렀어. 해발 1,255m의 이곳에 꽃 보고 별 보러 많은 관광객이 찾아온대.

고개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고갯마루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ㄱ ㅁ ㄹ] 야. 석회암이 물에 녹아 땅이 둥글게 움푹 파인 돌리네가 많아.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카르스트 지형이라 강원고생대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되었대.



카르스트 지형

고마루 아래 코끼리바위

평창읍

지금 우리가 보는 [ㄴㄹㄷ] 은 제방둑이 없을 때
강물이 실어 나른 퇴적물이 쌓여 만들어진 넓은 들판이야.

평창읍사무소를 기준으로
노람들까지가 중심지라 [ㅈㄹ] ,
평창강 평창교를 건너면 [ㅅㄹ] ,
전통시장과 평창군청이 있는 곳은
중리 아래쪽이라 [ㅎㄹ] 야.

지명유래

방림면

방림면을 휘돌아나가는 평창강에 소가 있어.
천길이나 된다고 해서 천제당소라고 전해져.
맑은 샘이 솟아나는 곳도 있어서
옛날에는 수해가 없게 해 달라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기도 했대.
맑고 깊은 물에 물고기가 많아 수달(천연기념물)도 볼 수 있어.
지금은 [ㅅ ㅈ ㄷ] 유원지에서
해마다 삼베삼굿(삼찌기)놀이를 해.

[ㅂ ㄹ ㅅ ㄱ ㄹ]는 방림면을 지나 원주와 서울로,
대화면을 지나 강릉으로, 평창읍을 지나 영월, 정선으로 가는
중요한 갈림길이야.

방림삼거리

천제당 유원지

삼씨앗

삼밭매기

삼치기

삼찌기

껍질벗기기

물레잣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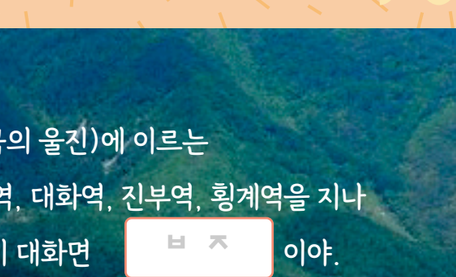
베짜는 처녀

완성된 삼베

대화연

ㄸㄸㄱㅇ은 한여름에 땀띠가 사라질 만큼 차가운 물이 나와서 사람들이 예부터 땀띠물이라고 부르던 곳이야. 가뭄에도 끊임없이 솟아나고 한여름에도 10℃래.

조선시대에는 서울에서 원주, 강릉을 거쳐 평해(지금의 울진)에 이르는 공공도로를 관동대로라 했어. 원주에서 운교역, 방림역, 대화역, 진부역, 횡계역을 지나 강릉으로 이어졌는데, 원주와 강릉의 절반이 되는 곳이 대화면 ㅂㅈ 이야.



용평면

장평리는 일제시대 때 노전리, 지석동, 진뜨루라는 세 마을을 합쳐 만들어진 마을 이름이야.

노전은 갈대밭이라는 뜻이고 지석동은 고인돌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래.

시냇물 따라 들이 길게 자리 잡고 있는 [ㅈ ㅍ ㄹ] 는 한자로 장평이라고 불렸어.

그래서 장평에 가면 진뜨루길이 있지.

1

둔전평

용전리에 가면 면사무소 앞에 집들이 많이 들어선 넓은 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밭이었대.

태기왕의 군사들이 머물면서 군량미를 자급자족하려고 농사를 짓던 땅이라는 전설이 있어.

그래서 [ㄷ ㅈ ㅍ] 이라는 이름이 생겼대.

봉평면

일제시대 때 논에 물을 잘 대려고 봉평에 저수지를 만들었어.
저수지를 만들면서 [ㅂ ㅊ ㄱ] 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지.
방축은 물을 가두려고 만든 둑인데, 방축골이라는 땅이름은
전국 곳곳에 많이 있대.

방축골

봉평 창동리는 옛날에 세곡(세금으로 내던 곡식)을
모아두는 창고가 있던 곳이야.
창고를 뜻하는 '창' 자와 마을이라는 뜻의 '동'자로
[ㅊ ㄷ ㄹ] 가 되었대. 미탄에도 창리라는 마을이 있어.

진부면

옛날에 오대산은 소나무, 박달나무, 피나무가 많은 울창한 숲이었어.
일제시대 조선총독부에서 운영하던 나무가공회사가 있던
자리라 [ㅎㅅㄱㄹ] 라고 한대.
일제는 나무회사를 운영하면서 화전민에게 월급도 주지 않고
일을 시켰다는 뼈 아픈 역사가 있지.
광복 이후에는 연필회사가 있었다고 하니 회사거리라고 할 만 하지.

회사거리

만과봉

조선 세조임금이 월정거리에서 과거시험을 보게 해 문과 18명,
무과 37명을 뽑았던 일이 있었어. 과거시험을 보려면 흙 한 줌과
돌멩이 한 개를 가져오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었어,
그것을 모아놓은 곳이 [ㅁㄱㅂ] 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어.

목도

오대산 동피골 목도소리는 나무를 옮기면서
우리 조상들이 함께 부르던 노래야.
회사거리 위에 '보메기'는 계곡물을 막아 나무를 쌓은 뒤
물이 가득 차면 보를 열어 나무를 한꺼번에
떠내려 보내던 곳이야.

평창 6가지 설화(만과봉)

북쪽의 의야지 골물, 동쪽의 대관령 골물, 서쪽의 황병산 골물이 모여들어 마을 앞을 엇갈려 흐르는 개울 모양을 보고 [ㅇ ㄱ] 라 불렀어. 그 어여쁜 이름을 버리고 굳이 발음도 어려운 횡계를 쓰는 것은 아무래도 안타까운 일이야. 횡계에는 '청뚜루버덩', '곧은골', '가시머리'처럼 순우리말 이름이 남아있는 마을도 있어.

옛날, 산에 흩어져 살던 화전민들의 집을 독가라고 불렀어. 화전을 금지하고 산림녹화사업을 시작하면서 화전민들이 모여 살도록 만든 마을을 [ㄷ ㄱ ㅊ]이라고 해. 산촌에는 이런 데가 많았대.

화전촌 귀틀집

독가촌

우리 고장에 전해지는 옛이야기를 알아보아요.

도임상의 잣죽

평창에 원님이 새로 부임하면 도임상에는 잣죽을 올리는 관습이 있었다. 평창이라는 산간벽지로 발령을 받은 원님은 오기 싫지만 억지로 왔다. 첫날부터 죽을 대접받는 것이 기분 나빴지만 할 수 없이 먹었는데 맛이 좋아 또 찾게 되었다. 그러나 이방은 "잣죽은 도임상에만 올리는 것이라 평소에는 먹을 수 없사옵니다."하고 말했다.

도임상은 원님이 새로 부임할 때 처음으로 대접받는 음식상이야.

평창은 산간오지로 알려져 원님이 발령을 받으면 부임을 기피하는 일도 있을 정도였대.
이 이야기에서는 옛날에 평창지역이 원님에게 죽을 올릴 정도로 궁핍한 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나옹대사와 소나무

고려말 오대산 북대에 나옹대사가 계셨는데 나옹대사는 월정사에서 두부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인 비지를 가져다가 부처님께 공양을 하였다. 눈 내린 어느 겨울날, 나옹대사는 월정사에서 비지를 얻어 북대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소나무 위에 있던 눈이 비지그릇에 떨어져 비지를 땅에 쏟게 되었다. 부처님께 공양을 하지 못하게 된 나옹스님은 오대산 산신께 소나무에게 벌을 주라고 하였다. 오대산 산신은 오대산에 있던 소나무를 모두 쫓아냈다. 그래서 오대산에는 소나무가 없다.

고려말 조선초,
불교에 큰 영향을 미친
나옹대사를 그리워해서
이 이야기가 만들어졌대.

소나무는 전나무보다 목재, 땔감용으로 많이 사용했대.
그래서 사람들이 소나무를 먼저 베어서 오대산 소나무가 점점 없어지게 되었지. 게다가 소나무는 그늘에서 싹이 트지 않을 뿐 아니라 잘 자라지도 못해 오대산에는 지금도 소나무가 별로 없대.

아기장수 설화

평창 어느 곳에 겨드랑이에 날개가 달린 아기가 태어나 전쟁을 지휘하는 장군놀이를 하며 자랐다. 이를 지켜본 마을 사람들은 부모에게 "장수가 태어나면 반역죄로 삼족을 멸할 것이니 아기를 죽이시오."하고 말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부모는 두려움에 떨다 결국 아기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

며칠 후, 아기장수를 태우려고 용마가 나타났으나 아기가 이미 죽어 용마도 죽었다.

아기장수는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영웅을 상징해.
부모가 아기장수를 죽이는 것은
실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희망을 포기한다는 뜻이야.

평창에는 아기장수 이야기가 있는 곳이 많아.
평창읍 마지리, 진부면 화의리의 마랑골, 용평면 장평리의 말굴이재,
용평면 속사리의 말무덤과 장군묘, 방림면 방림리의 용마터,
용바위소, 말서덕, 미탄면 기화리의 용마굴, 미탄면 수하리에 있어.

대화 반정 물 인심

강감찬 장군이 병사들을 이끌고 하안미 반정지역을 지나가다 목이 말라 마을 사람들에게 물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우리 마실 물도 귀해 줄 수 없소!" 하며 물을 주지 않았다. 이에 화가 난 강감찬 장군은 이 마을에 물이 나지 못하게 부적을 붙이고 떠났다. 이후로 하안미 반정지역은 물이 귀하게 되었다.

대화면 하안미 지역은
석회암 지대라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우물물도 귀한 지역이야.

물이 귀해 겪게 된 어려움을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지 않은 잘못으로 받아들여 만들어진 이야기야.
반정에 살던 사람들은 억울했을 것 같아.

우리 고장의 옛이야기에서 알게 된 점을 찾아요.

옛이야기

육백마지기 고마루 노람들 상·중·하리 땀띠공원 반정
천제당 방림삼거리 둔전평 진뜨루 방축골 창동리
회사거리 만과봉 엇개 독가촌 나옹대사와 소나무
아기장수 설화 도임상의 잣죽 반정 물 인심

옛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자연환경

옛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사람들의 생활모습

우리 고장 평창은 산이 많아 넘어야 할 고개도 많아요. 고개 이름에 맞게 이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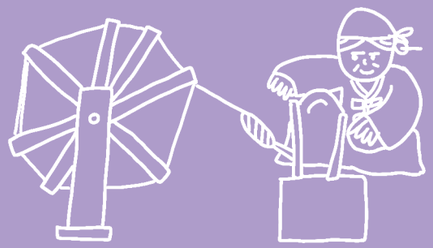
길고 긴 고개 ('진'은 '긴'의 사투리)	진고개
비행기를 탄 기분이 들 정도로 높은 고개	여우재
백여우가 나타나 사람을 홀렸다는 전설이 있는 고개	비행기재
칡 줄기를 사려놓은 듯 구불구불한 고개	대관령
싸리나무가 많은 골짜기 사이에 있는 고개	문재 (칡사리고개)
강릉부터 곶감 아흔 아홉 개를 먹으며 넘었던 큰 고개	싸리재

3 평창의 문화유산

❶ 이야기로 알아보는 우리 고장 문화유산

❷ 우리 고장의 다양한 문화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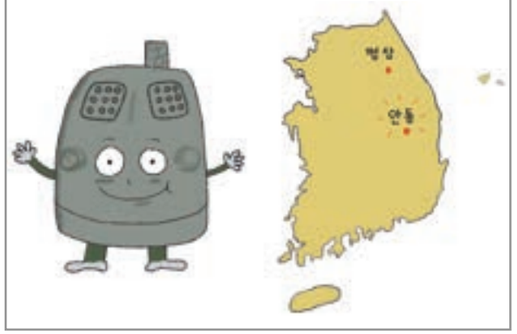
❸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 체험



1 이야기로 알아보는 우리 고장 문화유산

여러분도 오래 간직하고 싶은 소중한 것이 있지요? 우리 고장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오대산 상원사 동종 이야기 한 번 들어볼까요?

안녕? 난 부처님 가르침을 소리로 전하는 범종이야.
구리로 만들어서 동종이라 부르기도 해.
신라시대에 태어나 안동 부근에 있는 절에 살았어.



시간이 흘러 조선시대가 되자, 나라에서 유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불교를 탄압했어.
그래서 내가 살던 절이 없어지게 되었지.

결국 난 안동도호부 문루로 이사를 가서
성문을 여닫을 때 종소리를 내며 살게 되었어.

댕댕~ 문지기 문지기 문열어라~
열두시가 되면 문을 닫는다~ 댕댕~

어느 날, 상원사 이야기가 들려왔어. 상원사는 신라시대
세워졌다 불타 없어진 것을 다시 세운 절인데, 이 절에
보낼 가장 아름다운 종을 임금님이 찾는다네?
가장 아름다운 종? 그럼 난데?

상원사에서 스님이 나를 데리러 오셨지만,
난 이곳을 떠나기 싫어 버텼어.
나를 실은 수레는 꼼짝도 하지 않았지.

그러자 스님이 내 몸에 있던 연꽃봉오리 모양 하나를
떼어내며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와 함께 부처님 말씀을
전하며 살자꾸나!

스님 말씀에 난 마음이 열려,
상원사에 가기로 했어.

포뇌는 소리내어 울기 좋아하는 용의 아들이야.
포뇌는 고래를 보기만 해도 무서워서
종소리와 비슷한 소리를 내며 고래고래 운대.
그래서 종 치는 막대기를 고래 모양으로 하기도 해.
여기서 고래고래 운다는 말이 생겨났대. 재밌지?
고~래~~

동종 소리

붙임딱지를 활용하여 옛이야기를 간직한 평창 곳곳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알아보아요.

지동봉가옥

유동리오층석탑

월정사 탑돌이

평창향교

즉흥 역할극

국보

상원사 중창권선문

붙임딱지

왕 비 스님, 임금님 병이 나날이 깊어지니 걱정입니다. 좋은 기도처를 알려주세요.

신미대사 상원사라는 좋은 절터가 있긴 한데, 절이 불에 타서….

세 조 나도 도울테니 새로 짓거라.

신미대사 권선문(시주를 많이 하라고 권하는 글)으로 상원사 중창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둔전평농악을 듣고 시 한 편 써 봤어.

국가등록문화재

한암스님 가사

붙임딱지

월정사에 있는 한암스님 가사는 국가등록문화재예요. 가사란 스님의 윗옷 위에 입는 것으로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겨드랑이 밑으로 걸쳐지는 옷이예요. 가사는 네모난 조각천을 이어 붙여 만들어요.

강원도 무형문화재

둔전평농악

갱개개갱 갱개개갱
빠른 쇠가락
덩따쿵따 덩따쿵따
흥겨운 춤사위
둥둥두두 둥둥두두
어우러진 놀이판
삐리리삐리리삘~릴리
열 두 발 상모돌리기 멋져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백옥포 둔전평 농사일 거뜬 거뜬

상원사를 지켜낸 한암스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1월.
평창 오대산 부근에서는 남과 북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어.

그러던 어느 날,
한 무리의 군인이 상원사에 들이닥쳤어.

한암 스님은 잠깐 기다려달라고 한 뒤,
가사를 입고 법당으로 들어가 지휘관을 불렀어.

"이제 준비가 다 되었으니 불을 붙이시게."

지휘관은 깜짝 놀라 소리쳤어.

그러나 스님은 꿈쩍도 하지 않았지.

"그대는 군인이니 명령을 따르는게 당연하고,
나는 절을 지키는 게 당연하네.
우리 각자 할 일을 하는 것이니 어서 불을 지르게."

한암스님의 마음에 감동한 지휘관은
기발한 생각을 떠올렸어.

지휘관은 절에 불을 지르는 대신,
절의 문짝들을 떼어내 한 곳에 모아 불을 붙였지.

"이것도 절을 태운 것이라고 할 수 있지!"

문짝을 태워 절이 불에 탄 것처럼 꾸몄고,
한암스님은 상원사를 지켜낼 수 있었어.

상원사에 있던 문화유산

목조문수보살좌상
보물

목조문수동자좌상
국보

상원사 동종
국보

상원사 중창권선문
국보

목조문수동자좌상 복장유물
보물

목조문수보살좌상 복장유물
보물

평창읍에는 넓고 평평한 돌을 물고기비늘처럼 지붕에 얹은 돌기와집이 있어요. 신문 기사를 읽어 보아요.

PYEONGCH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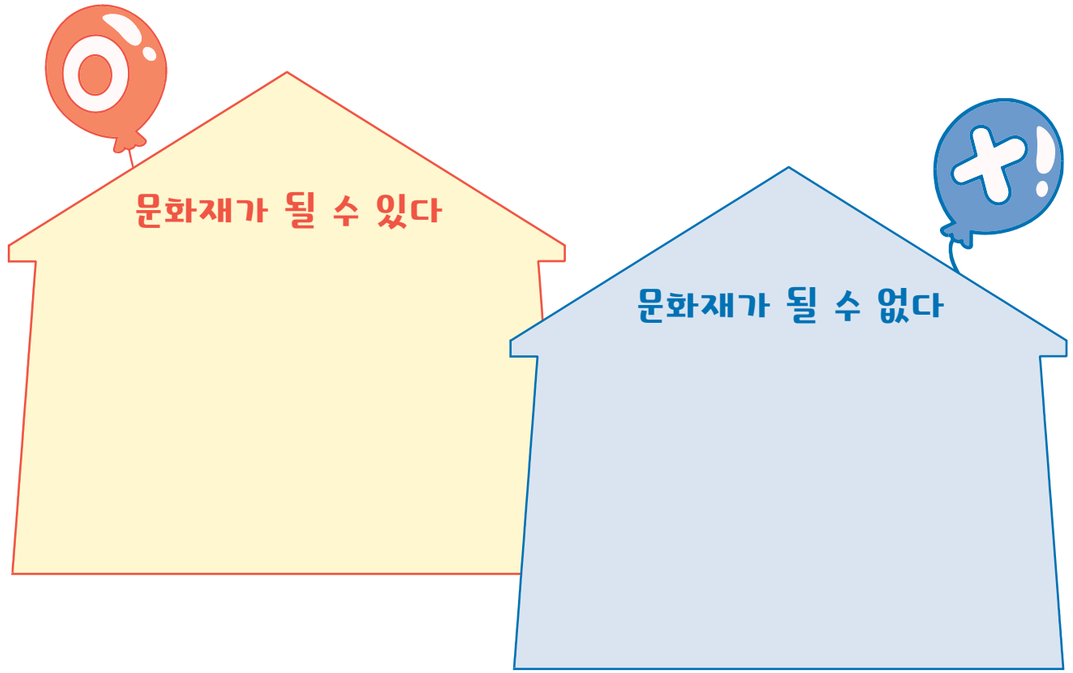
날아올라 평창 신문

평창읍내 '점판암' 올린 전통 돌지붕 주택 아직도 남아 있다

평창읍 노산성길 39에 70여년 된 돌기와집이 남아 있어 화제다. 이 집은 ㄱ자형으로 150제곱미터 정도의 크기인데 평창읍내에 한 채만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돌기와는 지붕자재가 귀하던 시절 평창읍, 미탄면 지역에 많이 있는 얇고 넓적한 점판암을 사용한 것이다. 1980년대까지 평창읍, 미탄면, 정선군, 태백시, 삼척시 등에 돌기와집들이 남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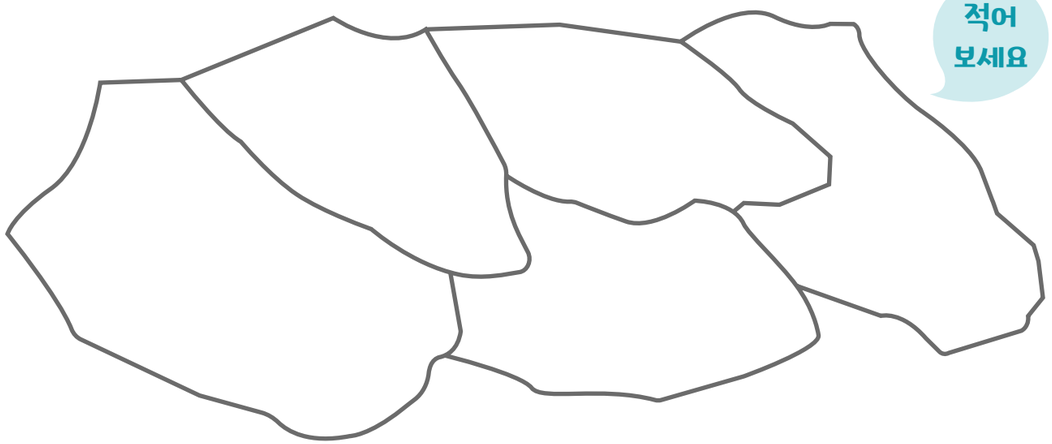
그러나 함석, 슬레이트, 플라스틱 재질의 지붕재료가 많이 보급되면서 돌기와집은 대부분 사라졌다. 선조들이 자연에서 나는 재료를 사용하여 집을 지은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보존해야한다고 주민들은 입을 모았다.

평창읍내 돌기와집은 문화재가 될 수 있을까요? 내 의견과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쓰고 친구들과 토론해 보아요.



돌기와집이 문화재가 될 수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적어 보세요



2 우리 고장의 다양한 문화유산

우리 고장 문화유산카드를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로 분류해요.

우리 고장 문화유산을 익히는 카드놀이를 해요.

1 평창 문화해설사를 찾아라!

① 문제를 낼 문화해설사를 정한 뒤, 순서대로 돌아가며 문제를 낸다.

② 문화해설사가 문제를 내면, 모둠원 누구나 문제를 맞출 수 있다.

③ 모둠원 전체가 정답을 모르면 "통과!"하고 외친다. 문화해설사도 다음 친구로 넘어간다.

④ 정해진 시간 동안 가장 많은 정답을 맞춘 모둠이 이긴다.

2 꿀 모으기 가위바위보게임!

① 모둠별로 문화재 카드(꿀)를 같은 수만큼 나누어 가져요.

② 모둠에서 여왕벌 역할을 맡은 사람은 문화재 카드를 일벌 역할에게 한 장씩 나누어 줘요.

③ 일벌이 된 모둠원은 카드를 한 장 들고 다른 모둠 일벌과 가위바위보를 해요.

④ 이긴 사람은 진 사람의 카드 그림이 어떤 문화재인지 맞추면 카드(꿀)를 얻어요.

⑤ 카드가 두 장이 된 일벌은 여왕벌에게 한 장 갖다주고 계속 가위바위보를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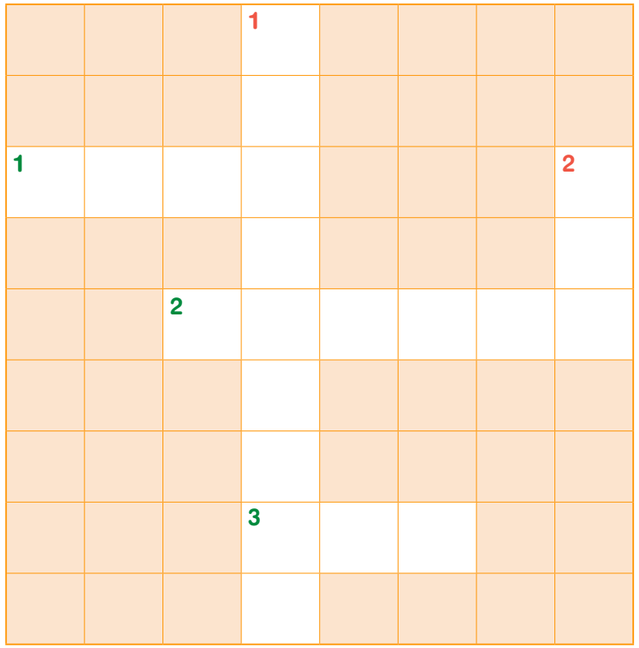
⑥ 카드가 없는 일벌은 여왕벌에게 한 장을 받아와서 계속 활동해요.

⑦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여왕벌의 역할을 바꾸고 놀이를 이어가요.

⑧ 놀이가 끝나면 카드(꿀)를 많이 모은 모둠이 이겨요.

3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 체험

3D 입체퍼즐에 동봉된 설명글을 읽고 낱말퍼즐을 완성해요.
석공의 마음이 되어 월정사팔각구층석탑을 한 층 한 층 올려볼까요?



가로열쇠

1. 2000년대 들어 석탑 주변 지역에 ○○○○를 벌여 월정사팔각구층석탑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확인했다. ○○○○에 알맞은 말은?
2. 다각형의 여러 층으로 쌓은 돌탑을 일컫는 말로 고려시대 석탑의 특징이 담겨 있다.
3. 경주 불국사에 있는 통일신라의 탑으로 석가여래상주설법탑을 줄인 말

세로열쇠

1.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월정사 안에 있는 탑으로 팔각석탑 가운데 가장 높은 탑으로 국보다.
2. 우리나라 십 원짜리 동전의 모델. 경주 불국사에 있는 통일신라시대의 탑으로 화려한 조각이 특징

Tip 월정사 성보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오대산의 보물을 찾아서'를 신청하시면 3D입체퍼즐을 받을 수 있어요. (문의 033-339-7000)

평창 바로알기 체험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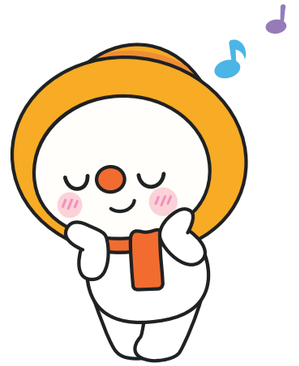
평창의 소리 '평창아라리'를 듣고 따라 불러보아요.

평창아라리

한치뒷산에 곤드레 딱죽이 임의 맘만 같다면
올 같은 흉년에도 봄 살아나겠네

청옥산에 떡갈잎은 나날이 퍼드러지는데
우리 집에 부모님은 나날이 늙어가시네

육백마지기 떡갈잎으로 거름만 할 수 있다면
우리 집에 자갈밭을 옥답으로 바꾸지



평창엮음아라리

가다보니 감낭기냐 오다보니 옻낭기냐 자빠졌다 잣나무 엎어졌다 엄나무
청실홍실 대추나무 꽝꽝 울려 뿔나무야 잡지 못할 굴뚝새 웅그하리
죽두가리 앞에 놓고 누었으니 잠이오나 앉어서나 님이오나 등불을 도다놓고
침자를 도다베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잠시 잠깐 깜박 조니 새벽달이 지새네

십리 밖에 신나무 오리 안에 오리나무칼로 찔러 피나무냐
콕콕 찔러 찔레나무 이편저편 양편나무 달 가운데 계수나무
향기나는 동박나무 동박을 따가지고 짜개틀에 설차 살짝 짜서
머리에 살짝 바르고 정든 님 오시기를 기다려보세

4 평창의 환경과 생활모습

❶ 우리 고장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❷ 우리 고장 사람들의 생활 모습

1 우리 고장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너도?나도! 놀이를 하며 평창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살펴볼까요?

놀이 방법

너도?나도! 놀이

① 평창의 장소카드에서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분류해 보아요.

② 모둠별로 평창을 대표하는 장소 다섯 곳을 골라 빈 칸에 써요.
(다른 모둠에게 들리지 않도록 소곤소곤 의논해요.)

③ 첫 번째 모둠이 장소 이름을 먼저 말해요.

④ 첫 번째 모둠과 같은 장소를 쓴 모둠은 다 같이 점수를 얻어요.
- 우리 모둠에서 쓴 장소를 똑같이 쓴 모둠이 두 모둠 더 있다면 세 모둠이 모두 3점
- 우리 모둠에서 쓴 장소를 똑같이 쓴 모둠이 없다면 0점

점수판

자연환경					
점수					
인문환경					
점수					

총 점

평창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떠올리며 붙임딱지로 음식을 만들어요.
평창의 특산물은 무엇일까요?

감자옹심이

재 료

올챙이국수

재 료

메밀부침개

재 료

송어회

재 료

붙임딱지로 평창의 축제 포스터를 완성해요. 평창의 어떤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활용했는지 써요.

예 시

딲띠공원, 찬물, 광천선굴

2 우리 고장 사람들의 생활 모습

우리 고장 사람들이 하는 일과 여가 생활을 알아 보아요.

하는 일

여가 생활

어른이 되어 하고 싶은 일을 찾아 그려요. 부록에 있는 붙임딱지로 꾸며도 좋아요.

평창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에 대한 OX퀴즈를 풀어요.

1 5억년 전 평창의 일부는 바다였다. O X

2 평창에서 고랭지 배추를 재배한다. O X

3 평창군에는 KTX 역이 있다. O X

4 메밀막국수는 밀가루로 만든다. O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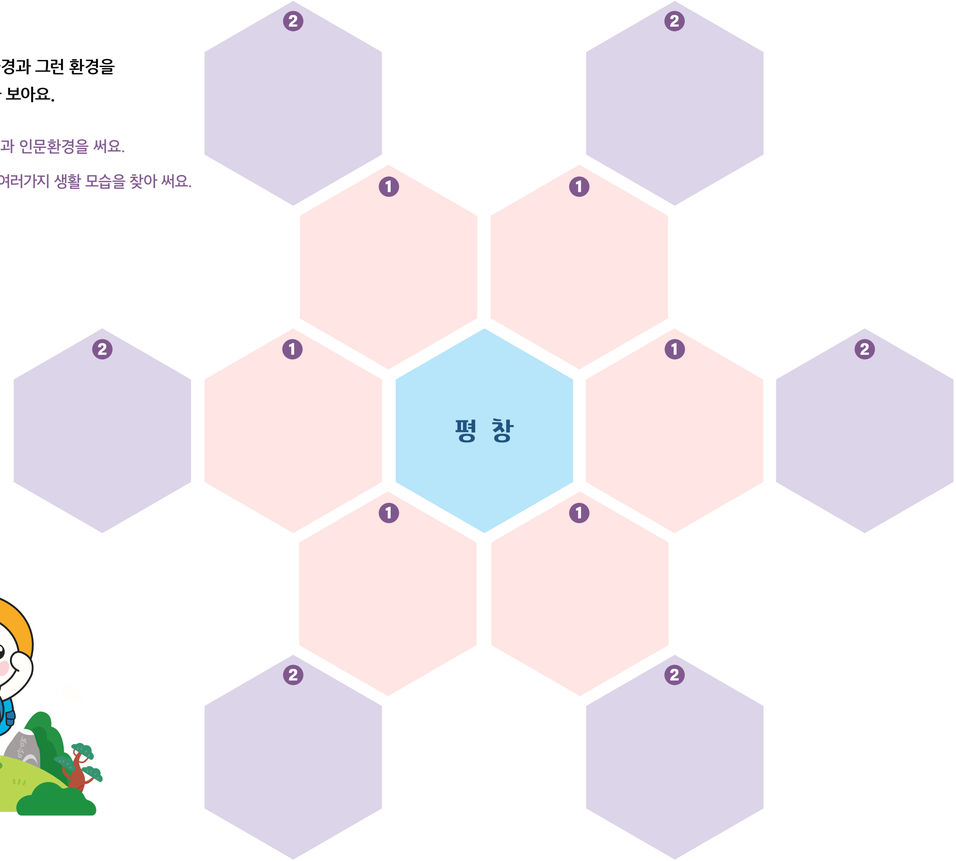
5 평창의 평균 기온은 서울보다 낮다. O X

6 오대산은 횡성에 있는 산이다. O X

평창에서 볼 수 있는 환경과 그런 환경을 이용한 생활 모습을 찾아 보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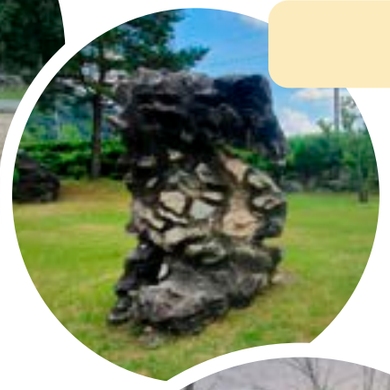
1 에 평창에서 볼 수 있는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써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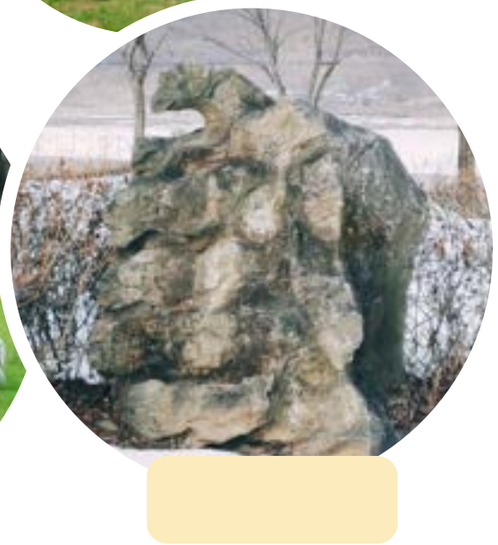
2 ①의 환경을 이용하여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생활 모습을 찾아 써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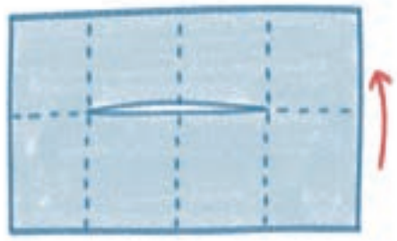
바위야, 네 이름은 뭐야?

평창에는 바위공원이 있어요. 평창읍을 중심으로 방림면일대에서 모은 다양한 모습의 돌이 120여 개가 넘어요. 설산바위, 장군바위, 병풍바위, 선녀바위, 돌고래 바위 등 재밌는 이름의 바위가 많답니다. 바위공원에 있는 바위를 보고 이름을 지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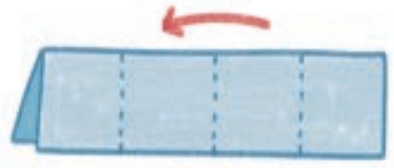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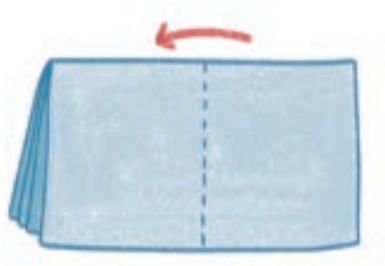
수첩 만드는 방법



① 종이를 반으로 접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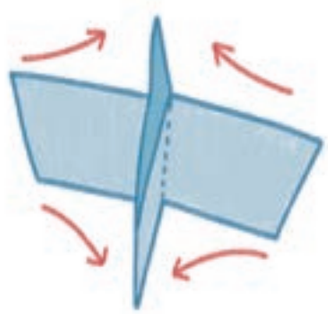


② 종이를 또 반으로 접어요.



③ 종이를 한 번 더 반으로 접어요.

④ 종이를 펼쳐서 위와 같은
모양이 나오게 만듭니다.



⑤ 종이의 양 끝을 잡고 가운데로 모아요.

⑥ 종이를 한 방향으로 몰아
8쪽짜리 책을 만들어요.

우리 고장 문화유산 답사 수첩

학년 _____ 반 _____

이름 _____

문화유산 그림을 그려요.

내가 사는 고장

답사할 장소

준비물

꼭 함께 가고 싶은 사람

나의 역할

답사 장소에 필요한 준비물을 잘 챙겨요.

문화유산을 소개한 안내 정보를 꼼꼼히 읽어 봐요.

다른 관람객에게 방해되지 않게 조용히 이야기해요.

나도 문화유산해설사

내가 문화유산해설사라면 _____

_____ 을 _____ 에게 소개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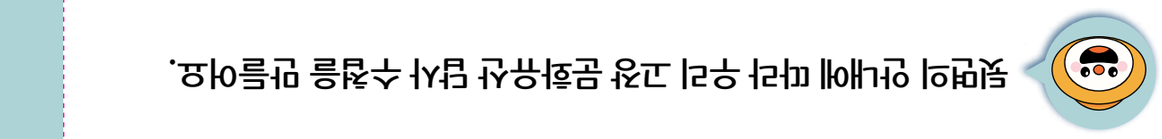
왜냐하면 _____

_____ 때문이다.

답사하며 느낀 점

문화유산 조사 내용

문화유산 조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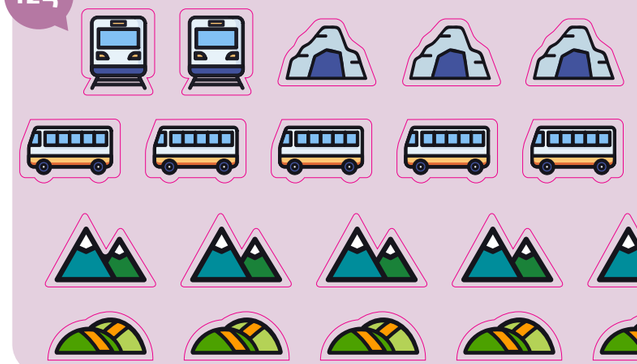


뒷면의 안내에 따라 우리 고장 문화유산 답사 수첩을 만들어요.

50쪽

14쪽

12쪽



49쪽

강원도무형문화재

탑돌이는 불교신자가 부처님의 공덕을 노래하며 스님을 따라 탑을 오른쪽으로 세 번 돌며 소원을 비는 불교의식이야. 탑돌이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월정사 탑돌이뿐이지.

강원도 문화재자료

1층 기단 위에 5층의 탑신을 올린 단아한 석탑이야. 밑돌과 맨 윗돌에 새겨넣은 연꽃무늬가 아름다워.
고려시대에 세운 탑으로 짐작되고 있어.

6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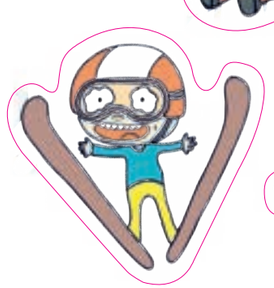
감자
감자
양파
양파
파
파
파
멸치
멸치
멸치
다시마
다시마
다시마
청양고추
들기름
들기름
참기름
참기름
김치
김치
들깨가루
들깨가루
고춧가루
고춧가루
간장
간장
부추
부추
참깨
참깨
콩가루
콩가루
초고추장
쪽파
쪽파
옥수수
옥수수
송어
당근
깻잎
깻잎
배추
배추
양배추
무
무
상추
상추
참나물
참나물
메밀
메밀
허브
허브
오이
마늘
마늘
마늘
파슬리
파슬리

진진 진부면

미미 미탄면

방방 방림면

봉봉 봉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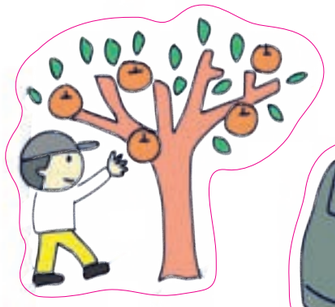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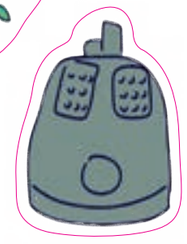
평평 평창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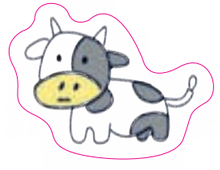
용용 용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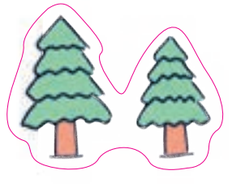
대화 대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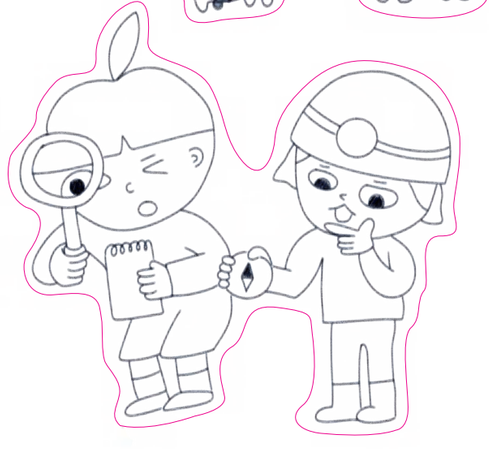
대영 대관령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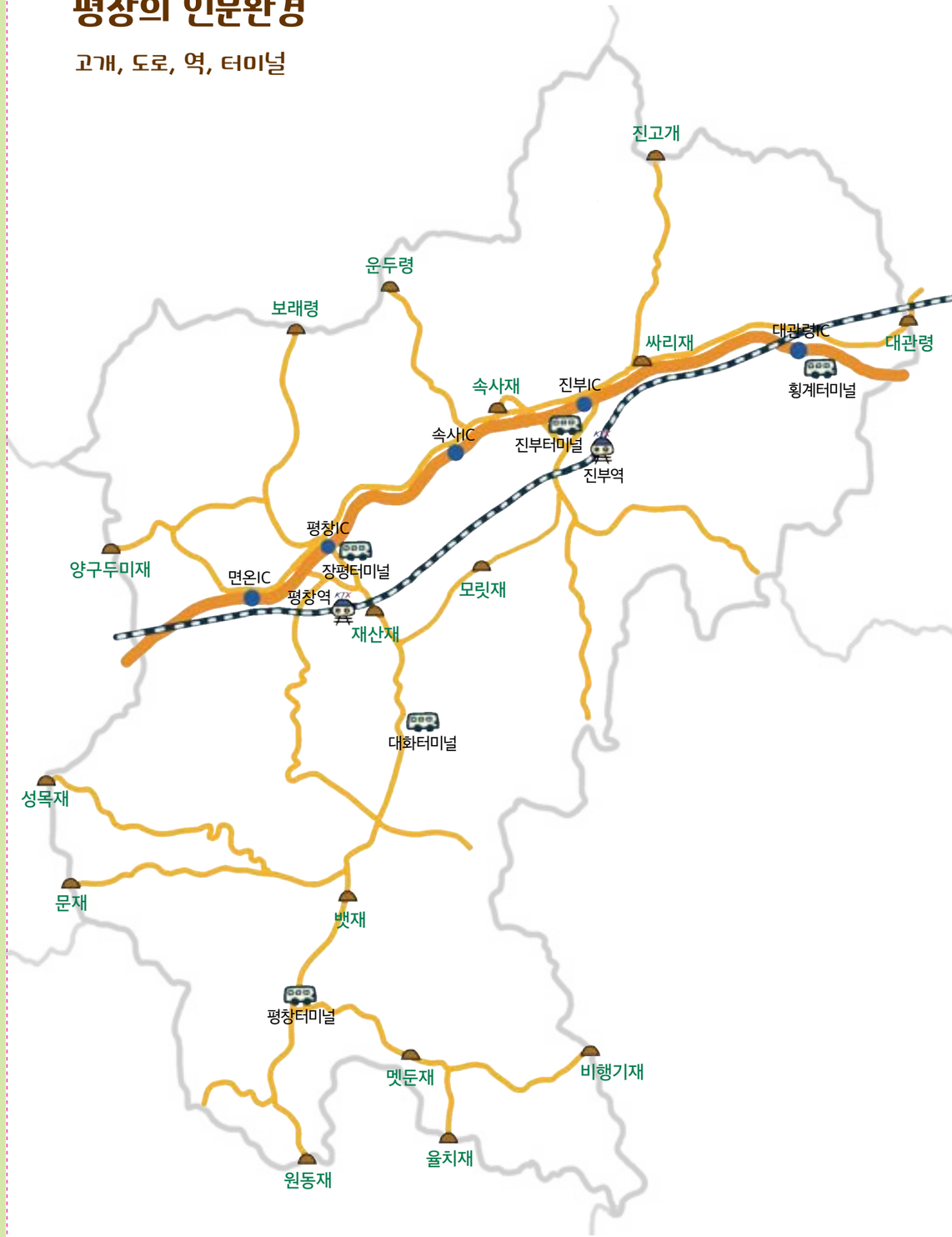






평창의 인문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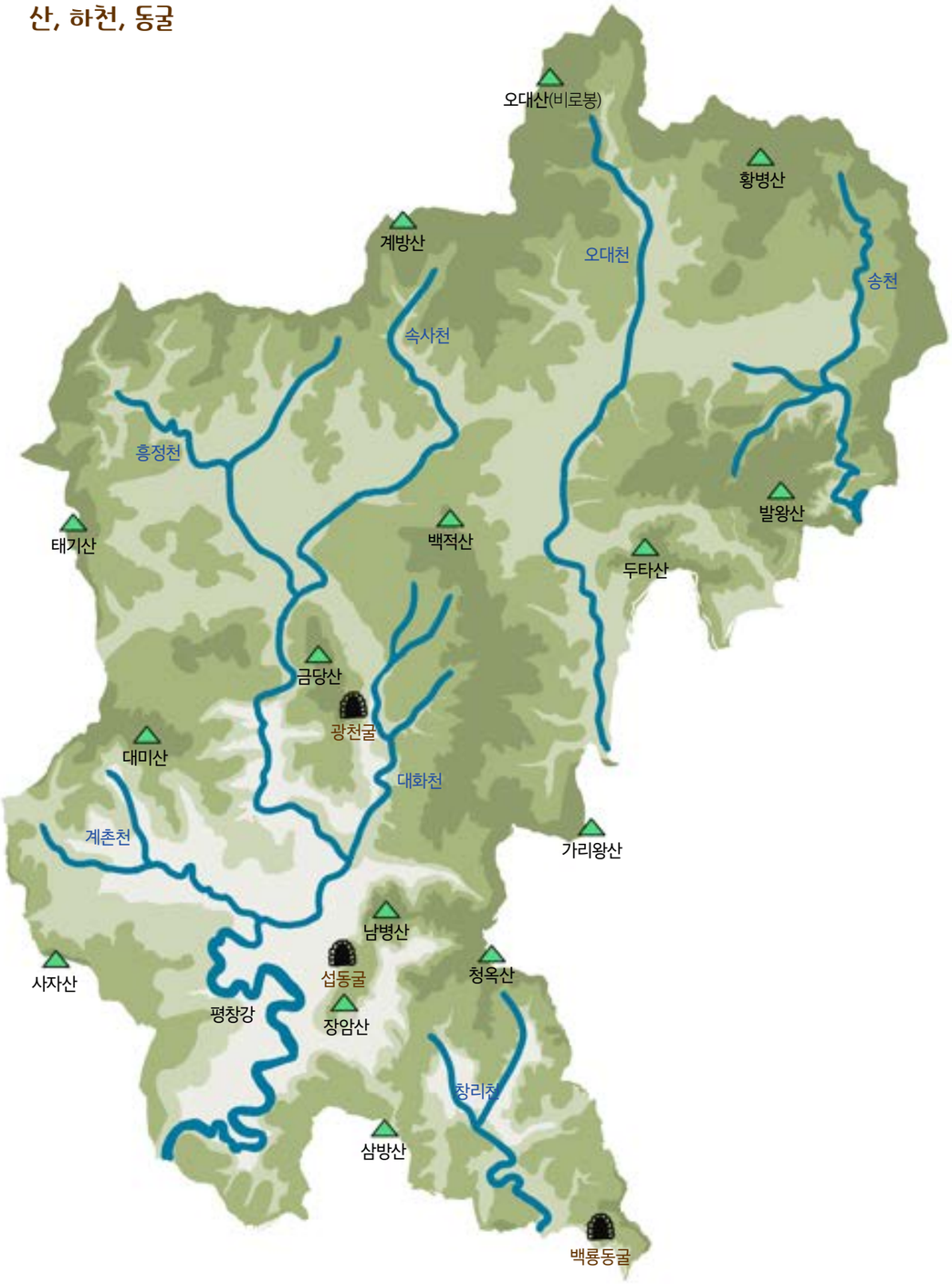
고개, 도로, 역, 터미널



▶ 점선을 따라 뜯어서 사용하세요.

평창의 자연환경

산, 하천, 동굴



점선을 따라 뜯어서 사용하세요.

나만의 평창지도

▶ 점선을 따라 접어서 사용하세요.

강원도문화재자료

지동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야,
4대에 걸쳐 살고 있대.
평창지역 전통 농가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

붙임딱지

붙임딱지

붙임딱지

강원도유형문화재

평창향교는 조선시대에 지은 학교!
여기서 가르친 건 바로바로
공자왈 맹자왈!
훌륭한 유학자에겐 넙죽 엎드려 제사!

붙임딱지

옛이야기를 간직한 평창 곳곳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알아보아요.

지동봉가옥

유동리오층석탑

월정사 탑돌이

평창향교